

## 3월 A매치 명단 발표 흥명보호 “해왔던 방향성 이어나갈 것”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흥명보호가 최정에 멤버로 3월 A매치에 나선다.

흥명보호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16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3월 A매치에 나설 2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6달 만에 뭉치는 흥명보호는 오는 23일 인천국제공항에 소집돼 비행길에 오른다.

FIFA 랭킹 22위 한국은 28일 오후 11시 영국 밀턴 킨스의 스타디움 MK에서 '37위' 코트디부아르, 4월1일 오전 3시45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움에서 '24위' 오스트리아와 격돌한다.

이번 유럽 원정은 올해 6월 개막할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최근 연계 능력이 최고조에 오른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이 선봉에 선다.

손흥민은 개막 후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MLS)와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을 포함해 8개의 공격포인트(1골 7도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황희찬(울버햄튼),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설영우(스베츠다) 등 주요 해외파도 모두 소집됐다.

흥 감독은 이날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3월 평가전은 월드컵 본선 나가기 전에 마지막 공식전이다. 대체적으로 소속팀에서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출전

16일 오후 3월 A매치에 나설 27명 공개 손흥민·이강인·김민재 등 최정에 선발해 “소속팀 경기력 좋은 선수들로 구성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월드컵에 가기 전까지 실험해야 하는 포지션도 있다”며 “특히 (부상 낙마자가 많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은 좀 더 실험해야 하고 조합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우(알아인), 원두재(코르 파칸) 등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줄부상을 당한 가운데, 지난 15일 소속팀 경기 중 발등 부상으로 교체됐던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페예노르트)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흥 감독은 “오늘 아침에도 황인범이 부상을 당했다. (소집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우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본선 때도 이런 부상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월드컵에 갈 때까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험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흥명보호는 5월 중순 최종 명단을 확정할 다음 미국 사전캠프로 출국하며,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월드컵에 나선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 속한 한국은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덴마크·체코·아일랜드·북마케도니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맞붙는다.

한국은 내년 6월12일과 19일 과달라라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패스D 승자와 멕시코를 상대하며 6월25일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맞붙는다.

3월 A매치 상대인 코트디부아르는 남아공, 오스트리아는 유럽 PO 패스D 승자를 대비하기 위해 초대할 스파링 상대다.

흥 감독은 “(지난해 11월 명단 발표 이후) 3~4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월드컵 조 추첨이 열렸고, 베이시캠프 현장 답사 후 결정도 했다”며 “또 1월에는 베이시캠프 전 사전 캠프를 꾸릴 곳을 답사하고 결정했다. 2월에는 유럽에 나가서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면담도 했다. 소통이 원활히 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준비에 신경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경기할 곳이 1600m 고지대다. 우리는 고지대에 노출되는 상황이 굉장히 적고, 기회가 많지 않다. 고지대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며 “훈련 방법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설명했다.

또 흥 감독은 “3월 경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방향성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9월, 10월, 11월에 좋은 평가전을 치렀고, 팀이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 방향성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흥명보호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3월 A매치 명단(27명)

▲골키퍼= 조현우(울산) 김승규(FC도



한국남자축구대표팀의흥명보호감독.사진=대한축구협회제공

교) 송범근(전북)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트) 이한범(미트윌란) 김주성(산프 레체히로시마) 김태현(가시마)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설영우(스베츠다) 옌스 카

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 김문환(대전)

▲미드필더= 양현준(셀틱) 백승호(버밍엄) 박진섭(저장) 황인범(페예노르트) 홍현석(헨트) 김진규(전북) 권혁규(카를스루에) 배준호(스톡크) 엄지성(스완지) 황희

찬(울버햄튼)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오현규(헹크)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 조규성(미트윌란)

/뉴스시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커뮤니티	쾌적한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선 전 탁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영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영암군민속씨름단, 월출천하장사관 개관으로 도약

영암군, 씨름단 전용 훈련시설 건립... 전지훈련장, 각종 씨름대회장 등 활용

전국대회 101회 우승으로 민속씨름의 최강자로 자리 잡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월출천하장사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체비를 마쳤다.

영암군이 17일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에서 씨름단 전용 훈련시설 '영암 월출천하장사관'의 개관식을 열었다.

민속씨름 전통을 계승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거점인 월출천하장사관은 선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할 전문 체육시설.

천하장사관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건

립됐다.

국비 38억원 포함 총사업비 128억원이 투입돼 2023년 11월에 착공, 올해 2월 개관 준비를 마치고 이번에 문을 열었다.

월출천하장사관 연면적 2,67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씨름훈련장, 체력단련실, 관람석, 의무실, 락커룸, 샤워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의 훈련장을 넘어 다른 지역 선수단의 전지훈련장, 각종 씨름대회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와 에너지를 상징하는 씨름의 메카 영암 위상을 널리 알리고, 스포츠 교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등을 담당할 공간으로 월출천하장사관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월출천하장사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자산으로 자리하게 하겠다.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씨름 꿈나무를 키우는 등 민속스포츠를 저변을 확산하는 중심지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순천시청 김지정 선수, 유도 국가대표 선발 확정

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유도 김지정 선수가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 겸)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열리고 있는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김지정 선수가 70kg 이하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확정됐고, 이윤선 선수도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함께 선발됐다.

김지정 선수는 지난해 11월 순천에서 열린 2025 순천만국가정원기 전국유도대

회(2026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겸)에서도 은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이어,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윤선 선수는 지난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이후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78kg 이하급 국가대표 후보선수에 선발되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지도자의 훌륭한 가르침이 어우러져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대회에서 순천시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순천시청 김지정 선수(좌측에서 두번째)가 보령에서 열리고 있는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은메달 획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으로 두 선수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